

ISSN: 2800-051X

HankookResearch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186-1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별난리서치: 궁합에 대한 인식조사

2022. 06. 29.

담당자 이소연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2

e-mail | lee.sy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
e-mail | dhlee@hrc.co.kr

연구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이소연 연구원

전화 | 02-3014-1062

e-mail | lee.sy@hrc.co.kr

1

궁합(宮合)을 본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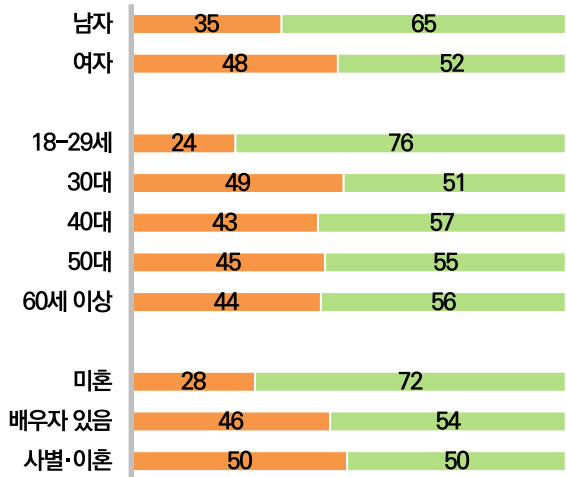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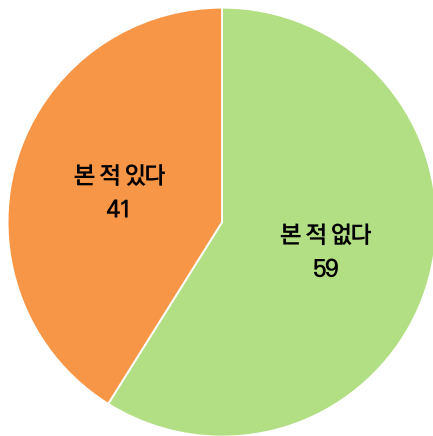
10명 중 4명(41%), 연인 혹은 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어

연인 혹은 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. 10명 중 4명(41%)은 연인·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, 59%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.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, 여성이거나 30대 이상, 혼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~50%는 자신의 연인·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. 20대 응답자는 24%만이 궁합을 보았다고 답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.

연인·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다 41% vs 본 적이 없다 59%

여성과 30대 이상·혼인 경험 있는 응답자 4~50%, 연인·배우자와 궁합을 본 적이 있다

(단위 : %)



질문: 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궁합(宮合)을 본 적이 있습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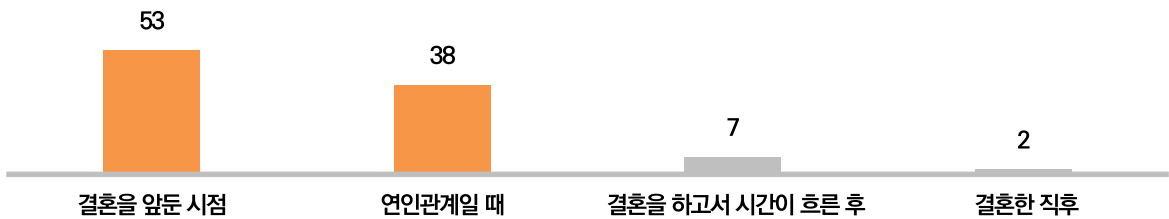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궁합을 본 시점: 주로 결혼을 앞두었거나(53%), 연인관계일 때(38%)

궁합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주로 결혼을 앞둔 시점에 궁합을 봤다고 답했다(53%). 다음으로 연인관계일 때 궁합을 봤다는 응답(38%)이 뒤를 이었다. 대체로 삶에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이나, 만남을 지속할지 고민하는 시기에 궁합을 보고 있었다.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, 어릴수록 연인관계일 때 궁합을 봤다고 답했다.

주로 결혼을 앞둔 시점(53%)이나 연인관계일 때(38%) 궁합을 보고 있어

(단위 : %)



고연령층은 결혼을 앞둔 시점에, 어릴수록 연인관계일 때 궁합을 봤다고 답해

(단위 : %)

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음	사례수 (명)	결혼을 앞둔 시점	연인관계일 때	결혼을 하고서 시간이 흐른 후	결혼한 직후	계
전체	(411)	53	38	7	2	100
연령						
18-29세	(41)	21	79	0	0	100
30대	(74)	36	63	1	0	100
40대	(79)	48	45	3	4	100
50대	(87)	57	25	13	5	100
60세 이상	(130)	73	15	12	0	100

질문: 언제 궁합(宮合)을 보셨습니까?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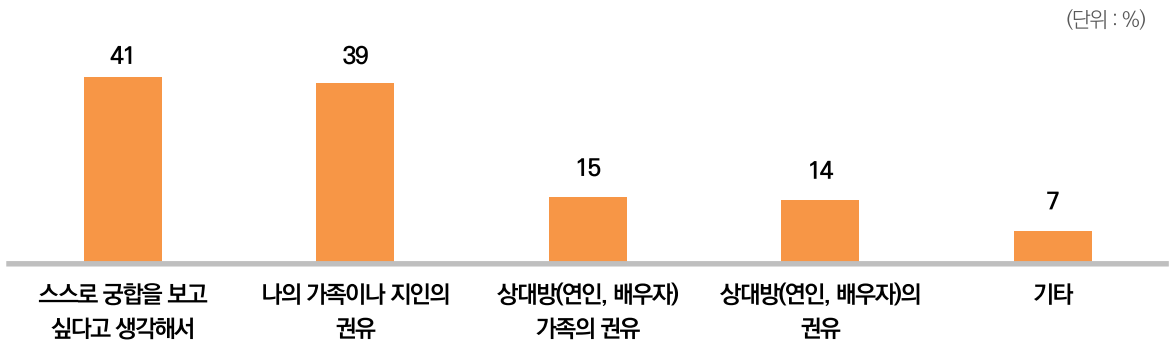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궁합을 본 계기: 개인의 선택(41%) 혹은 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(39%)

궁합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는 스스로 궁합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나(41%), 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(39%)로 궁합을 봤다고 답했다. 주로 연인관계일 때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궁합을 보았고, 결혼을 앞둔 시점에는 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궁합을 봤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.

정리해 보면, 여성(48%)은 남성(35%)에 비해 궁합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이 높았을 뿐더러 궁합을 봤다고 답한 여성 절반(51%)은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궁합을 봤다고 답했다. 어릴수록 연인관계에서 개인의 궁금증으로 궁합을 봤고, 고연령층에서는 결혼을 앞둔 시점에 나의 가족·지인의 권유로 봤다는 응답이 높았다.

개인의 선택(41%) 혹은 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(39%)로 궁합을 봤다고 답해



여성·20대는 개인적인 궁금증으로, 60세 이상 응답자는 가족이나 지인 권유 연인 관계일 때는 주로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,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변 가족들의 권유

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음	사례수 (명)	스스로 궁합을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	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	상대방(연인, 배우자) 가족의 권유	상대방(연인, 배우자)의 권유	기타
전체	(411)	41	39	15	14	7
성별						
남자	(172)	27	40	18	26	7
여자	(239)	51	39	12	5	7
연령						
18-29세	(41)	64	11	11	31	4
30-39세	(74)	40	35	14	21	13
40-49세	(79)	45	32	18	17	6
50-59세	(87)	39	39	18	10	7
60세 이상	(130)	32	56	11	5	6
궁합을 본 시기						
연인관계일 때	(156)	62	23	11	21	5
결혼을 앞둔 시점	(217)	23	52	19	9	8

질문: 어떤 이유로 궁합(宮合)을 보셨습니까?

비고: 복수응답. 결혼한 직후, 결혼 하고서 시간이 지난 후 궁합을 봤다는 응답은 표본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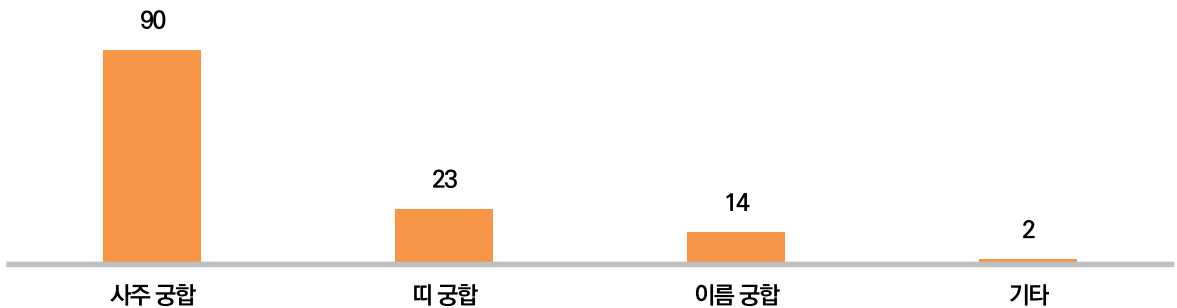
궁합 종류: 주로 사주 궁합을 봤다고 답해, 90% 궁합을 본 방식: 철학관이나 점집 등 직접 방문, 83%

궁합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9명(90%)은 주로 사주 궁합을 봤다고 답했다. 다음으로 띠 궁합(23%), 이름 궁합(14%) 순이었다.

어떤 방식으로 궁합을 봤는지도 물었다. 철학관·점집 등 직접 방문해서 궁합을 봤다는 응답이 83%로 가장 높았다. 다음으로 무료 어플·온라인 사이트 이용(15%), 전화상담(4%), 유료 어플·온라인 사이트 이용(2%) 순으로 높았다.

주로 사주 궁합을 보았고(90%) 다음으로 띠 궁합(23%), 이름 궁합(14%) 순

(단위 : %)



질문: 어떤 종류의 궁합(宮合)을 보셨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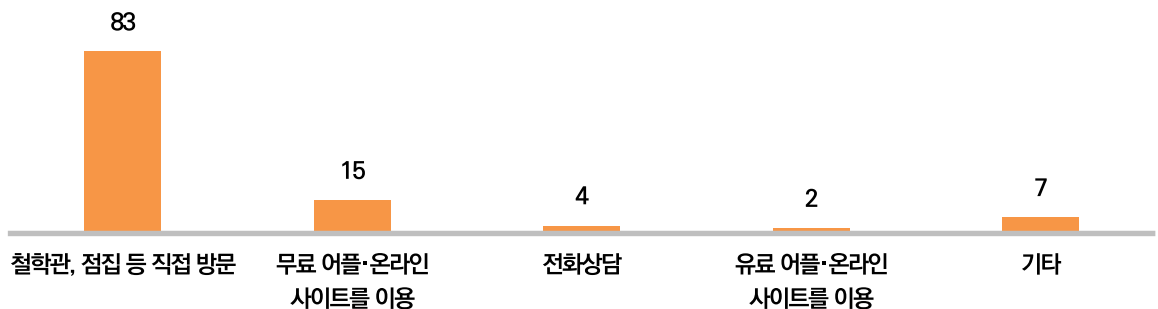
비고: 복수응답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대체로 철학관이나 점집 등을 직접 방문해서 궁합을 봤다는 응답, 83%

(단위 : %)



질문: 어떤 방식으로 궁합(宮合)을 보셨습니까?

비고: 복수응답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2

궁합(宮合)을 보기 전·후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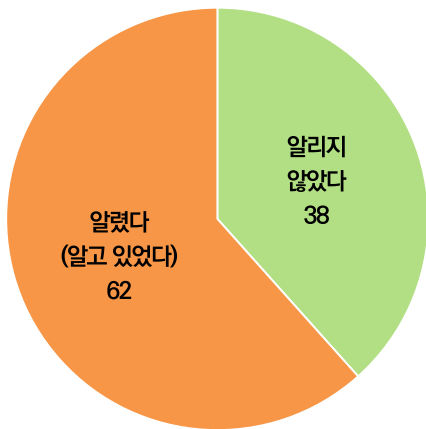
궁합을 보기 전·후에 연인·배우자에게 알렸다는 응답, 6-70% 대 궁합을 보기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38%로 낮지 않아

궁합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6-7명 정도는 궁합을 보기 전(62%)이나 궁합을 본 후(74%)에 이를 상대에게 알렸다고 답했다. 다만, 궁합을 보기 전에 상대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도 38%로 낮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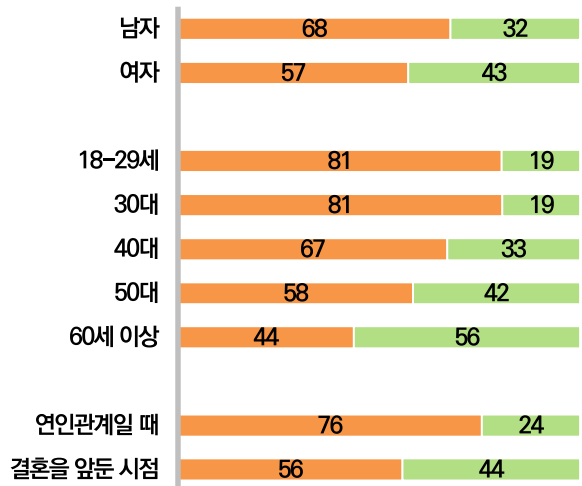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, 어떤 사람들이 궁합을 보기 전·후에 이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을까? 5-60대의 고연령층은 궁합을 보기 전·후에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. 여성(43%)도 궁합을 보기 전 이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성(32%)에 비해 높았다.

궁합을 본 시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. 결혼을 앞둔 시점에 상대방과의 궁합을 봤다는 응답자는 연인관계일 때 궁합을 봤다는 응답자에 비해 궁합을 보기 전·후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다.

궁합을 보기 전에 연인·배우자에게 알렸다 62%



(단위 : %)



질문: 궁합(宮合)을 보기 전 혹은 본 후에 이를 상대방(연인, 배우자)에게 알리셨습니까? - 궁합을 보기 전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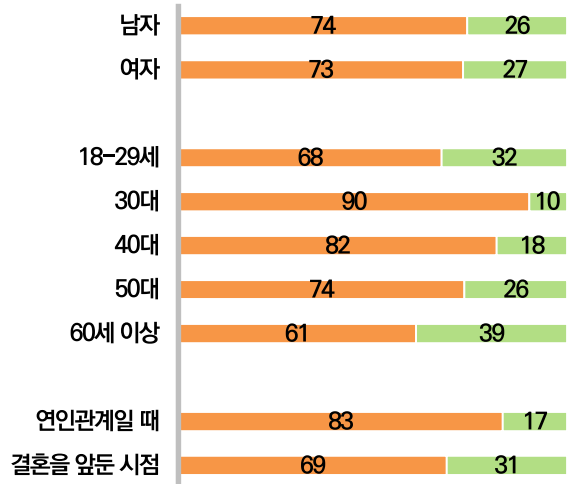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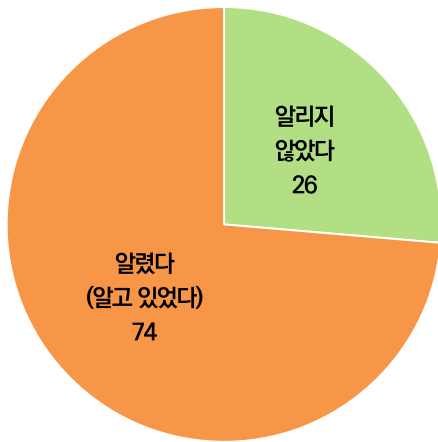
비고: 결혼한 직후, 결혼 하고서 시간이 지난 후 궁합을 봤다는 응답은 표본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궁합을 본 후에 연인·배우자에게 알렸다 74%

(단위 : %)



질문: 궁합(宮合)을 보기 전 혹은 본 후에 이를 상대방(연인, 배우자)에게 알리셨습니까? - 궁합을 본 후

비고: 결혼한 직후, 결혼 하고서 시간이 지난 후 궁합을 봤다는 응답은 표본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

응답자 수: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본 적 있는 응답자 411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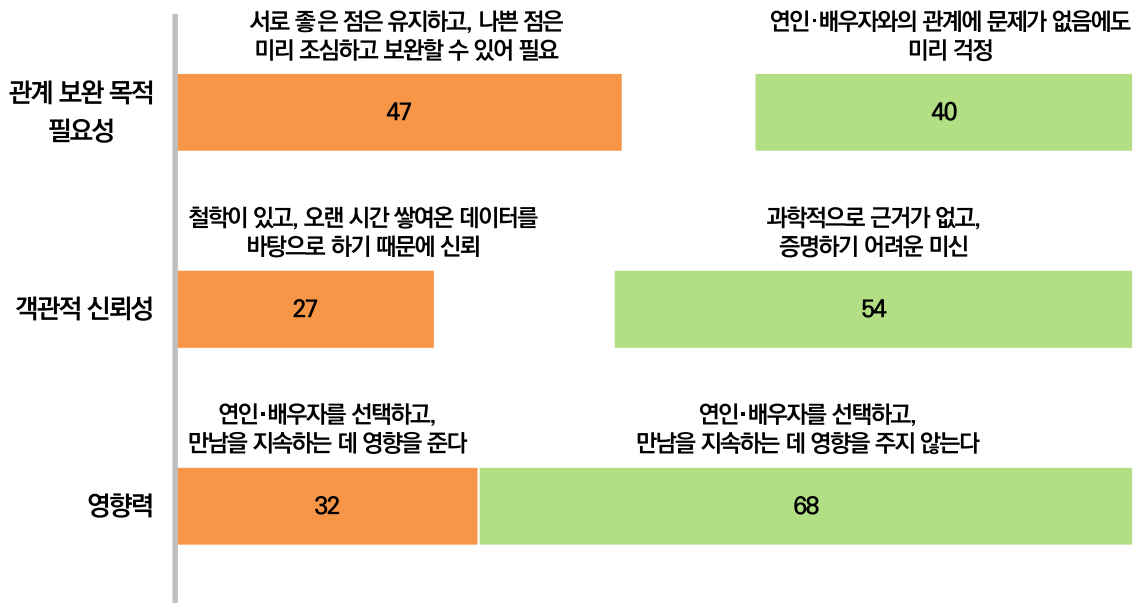
공합(宮合)에 대한 인식

**공합이 연인·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데 절반이 동의(47%)
다만, 객관적 신뢰성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**

공합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어떤 입장에 가까운지 물었다. 응답자 절반(47%) 정도는 공합이 ‘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 나쁜 점은 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’고 답했다. 다만, 공합의 객관성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이었다. 공합은 ‘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다(54%)’, ‘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(68%)’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.

공합이 연인·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어 필요해, 47%
다만, 공합의 객관성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

(단위 : %)



질문: 공합(宮合)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?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궁합을 본 적이 있는 응답자, 궁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객관성 결여 및 연인·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

궁합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0%는 궁합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. 다만 궁합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궁합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(41%)과 그렇지 않다(45%)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, 궁합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(63%)는 응답이 우세하였다. 또한 남성(59%)은 여성(50%)에 비해 궁합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,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라는 응답이 높았다.

궁합을 본 적 있는 응답자, 상대방과의 관계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나 객관성 결여 및 연인·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

(단위 : %)

사례수 (명)	관계 보완		객관적 신뢰성		영향력	
	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, 나쁜 점은 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	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미리 걱정하게 한다	나름의 철학이 있고, 오랜 시간 쌓여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	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, 증명하기 어려운 미신이다	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준다	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
전체 (1,000)	47	40	27	54	32	68
성별						
남자 (497)	43	41	24	59	30	70
여자 (503)	50	38	30	50	33	67
연인·배우자와 궁합을 본 경험						
본 적이 있다 (411)	70	23	41	45	37	63
본 적이 없다 (589)	30	51	17	61	27	73

질문: 궁합(宮合)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?

비고: '잘 모르겠다' 응답 제외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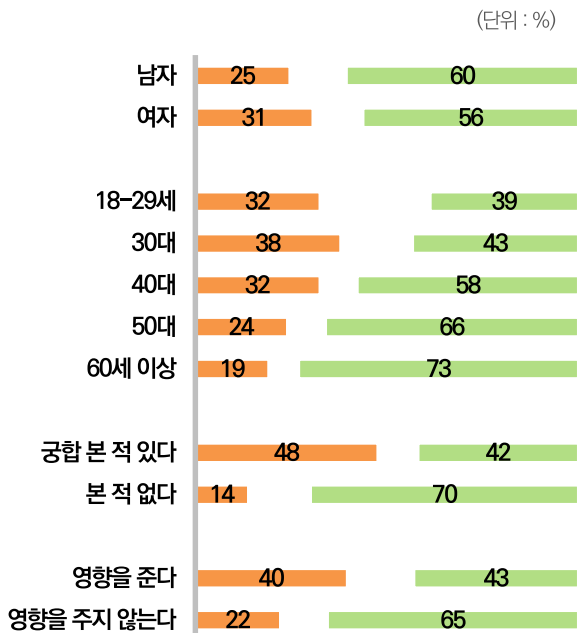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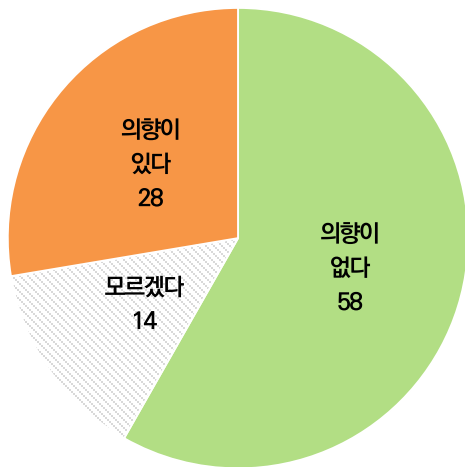
궁합(宮合)을 볼 의향

향후 궁합을 볼 의향 있다 28%, 없다 58%
연인·배우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같이 보러 갈 것이다 77%

응답자 절반 이상(58%)은 향후 궁합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.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앞으로 궁합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(60세 이상 73%, 50대 66%).

이전에 궁합을 본 적 있고, 궁합이 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40% 정도만이 궁합을 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. 연인관계를 지속하거나 결혼을 결정할 때 궁합이 영향을 준다고 답했지만, 사실상 향후 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응답자 절반 이상(58%), 향후 궁합 보지 않을 것이다
 고연령층·궁합 본 적 있고 영향력 있다고 답한 응답자, 향후 의향 높지 않아



질문: 앞으로 연인 혹은 배우자와의 궁합(宮合)을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?

비고: - 궁합(宮合)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? 1. 궁합은 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준다 / 2. 합은 연인·배우자를 선택하고, 만남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

- 모름 응답 제외

응답자 수: 1,000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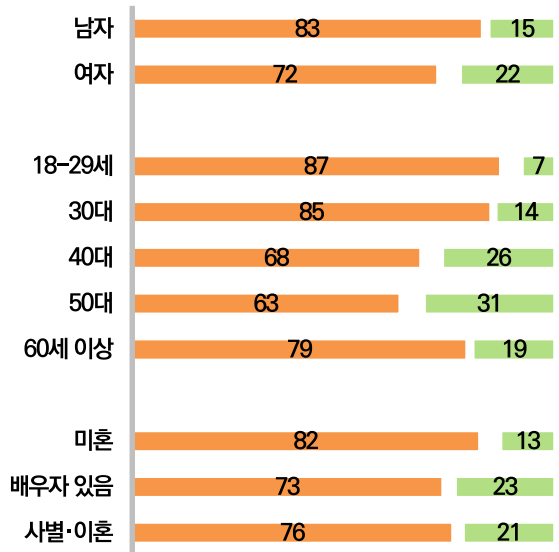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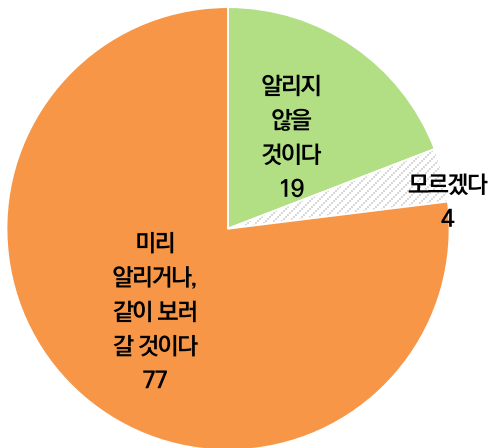
연인·배우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같이 보러 갈 것이다, 77%

향후 궁합을 볼 의향 있는 응답자 중 77%는 연인·배우자에게 미리 알리거나, 같이 궁합을 보러 가겠다고 답했다. 그 중에서도 남성과 2·30대 응답자는 상대에게 알리거나 같이 보러 가겠다는 응답이 80% 대로 높았다.

궁합을 본다면,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같이 보러 갈 것이다 77%

궁합을 본다면, 상대방(연인, 배우자)에게...

(단위 : %)



질문: 의향이 있으시다면,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궁합(宮合) 볼 것을 미리 알리시겠습니까? 그렇지 않으십니까?

응답자 수: 향후 연인·배우자와 궁합 볼 의향 있는 응답자 276명

조사기간: 2022. 05. 20 ~ 23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2년 4월 기준 전국 76만여 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 (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6,549명, 조사참여 1,330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5.3%, 참여대비 75.2%)
조사일시	• 2022년 5월 20일 ~ 5월 23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
여輿論論

Hankook | Research

